

# 순창 작은영화관 관람객 10만명

〈천재의 공간 영화산책〉

기획전 통한 무료 관람도 많아  
군, “실제 인원 10만명 넘을 듯”  
최신 개봉작 위주로 상영작 편성  
대도시와 동시 상영이 성공요인  
10만번째 관람객 축하 이벤트도



황숙주 순창군수가 10만번째 관람객인 박연홍씨에게 10만원권 영화상품권을 증정했다.

순창군 작은영화관 ‘천재의 공간 영화산책’ 관람객이 10만명을 돌파하며 지역을 대표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군은 최근 천재의 공간 영화산책 누적 유료 관람객수가 1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10월 개관 이후 약 1년 10개월 만이다. 이는 다른 지역 작은영화관과 비교해서 단기간 내에 이뤄진 성과라 의미가 더 크다.  
군은 지금까지 기획전을 통해 무료 관람행사도 많았기 때문에 실제 영화관람인원은 10만 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순창 ‘천재의 공간 영화산책’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최신 개봉작 위주로 상영작을 편성하고 최신 영화를 대도시와 동시에 상영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한 점을 성공요인으로 꼽고 있다. 또 영화관 개관 북콘서트, 3.1절

기념 호국영화 상영 등 다양한 이벤트도 인기의 한몫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2일 10만 번째 관람객 축하 이벤트도 진행됐다. 10만번째 행운의 관람객 주인공은 가족과 함께 영화관을 찾은 구립면 박연홍(44, 여)씨가 차지했다. 황숙주 군수도 이날 영화관을 찾아 십만 번째 관람객인 구립면 박연홍씨와 기념촬영을 하고 문화융성 정책에 적극 동참해준 군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또 영화관 위탁업체인 작은영화관 사회적협

동조합(대표 김선태)도 10만 번째 관람객에게 10만원 상당의 무료 관람권을 증정하고 같은 상영관에서 영화를 관람한 관객 전원에게 만 원권 무료관람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가졌다.  
한편 순창군은 작은영화관 이외에도 청소년 문화의 집, 상주단체 오케스트라 공연, 일품공원 생활문화예술동호회 공연, 작은 미술관 운영 등을 통해 군민 모두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 어린이 참여 놀이극 ‘오즈를 찾아서’ 19일 국립전주박물관 강당서 공연

국립전주박물관(관장 김승희)은 어린이 참여 놀이극 ‘오즈를 찾아서’를 오는 19일 오후 3시와 6시 박물관 강당에서 두 차례 공연한다.



경북 극단 공터다 '청록'



전북 극단 문화영도 판 '일상다반사'

8월 아간개장 문화공연으로 펼쳐지는 오즈를 찾아서는 신기한 마법과 놀라운 모험이 펼쳐지는 프랭크 바움의 명작 동화인 ‘오즈의 마법사’를 새로이 각색했다.  
동화 속에 나오는 도시는 영롱하고 모험심이 강한 소년 ‘푸푸’로, 겁쟁이 사자는 자신이 강아지라고 생각하는 ‘초췌’로 그리는 등 다양한 인물들을 재창조해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공연을 선보인다.  
또 여기에 탐험대장 ‘탐탐이’라는 새로운 캐릭터까지 등장시켜 재미를 더한다.  
이와 함께 공연은 마임과 복화술, 타악 퍼포먼스 등을 가미하여 오즈의 여행길을 흥미롭게 꾸민다. 여정은 공기대포 놀이와 거미줄 타기·공놀이 등의 미션을 배치하여 아이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17일 오후 6시까지 전주박물관 누리집(namju.museum.go.kr)에서 선착순으로 예약을 받는다.  
한편 8월 테마별 가족영화로는 ‘이른 우리 역사’를 주제로 한 ‘오빠생각’이 26일 오후 6시 문화사랑방에서 상영된다.

/정해은 기자

## 전주서 연극으로 영호남 하나로

18일부터 이틀간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서 교류행사 개최

2017 ‘영·호남예술교류’ 행사가 오는 18~19일 양일간 전주에서 열린다.  
영·호남예술교류 행사는 (사)한국예총 전북·경북도연합회가 매년 양 지역을 오가며, 예술의 상호교류를 통해 우의를 다지는 자리로 올해 18회를 맞이한다.  
‘영·호남 연극으로 하나 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행사에서 전북은 극단 문화영도 판의 ‘일상다반사’를, 경북은 극단 문화창작 집단 공터다의 ‘청록’을 18일 오후 4시부터 각각 30분씩 전주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선보인다. 공연이 끝난 후에는 전주 노블레스 웨딩홀에서 기념식을 갖는다.  
양 연합회는 이튿날인 19일에는 한옥마을 경기전과 임실치즈테마파크를 방문할 예정이다.

선기현 전북예총 회장은 “앞으로 더 많은 교류와 콘텐츠 개발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교류가 될 것이다”며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신뢰와 우의를 다지는 활발한 교류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명국 경북예총 회장은 “매마다 각 분야별로 예술교류를 가짐으로써 양도의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이번 연극공연도 크게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고 전했다.

/정해은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 “꿈꾸던 영화제서 큰 상 받아 감격”



‘초행’ 김대환 감독  
로카르노 영화제서  
신인 감독상 수상

공명성을 가진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 성취는 걸음으로 드러난 것 이상으로 견고하다고 호평했다.

한국영화가 로카르노국제영화제 본상을 수상한 것은 1989년 배용근 감독의 ‘날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은’으로 대성 황금표범상을, 2001년 ‘내비’의 여주인공 김호정이 여우주연상을, 2013년 홍상수 감독이 ‘우리 선화’로 감독상을, 2016년 홍상수 감독의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가 황금표범상과 남우주연상(정재영) 이래 다섯 번째로 신인감독 등용문인 현재의 감독 부문 수상을 이번이 처음이다.

김대환 감독은 “꿈꾸던 영화제에서 큰 상을 수상하게 돼 정말 감격스럽다”며 “어려운 제작 여건이었지만, 전주국제영화제 전주시네마프로젝트에 선정되면서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다. 좋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정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첫 선을 보인 ‘초행’은 하반기 극장에서 개봉할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전주국제영화제 ‘전주시네마프로젝트 2017’ 작인 ‘초행’의 김대환 감독이 로카르노국제영화제에서 ‘현재의 감독’ 부문 감독상을 수상했다.

‘초행’은 지난 12일 스위스 로카르노에서 막을 내린 제70회 로카르노국제영화제 시상식에서 현재의 감독 부문 감독상 수상작으로 호명됐다. ‘현재의 감독’ 부문은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작품을 연출한 신인 감독들의 작품이 경쟁하는 경쟁 섹션이다.

로카르노국제영화제 마크 페란스 프로그래머는 “이 미묘하고 정서적인 작품을 통해 김대환은 최소한의 수단만으로 보편적

## 반딧불이와 함께하는 ‘김환태 글짓기대회’ 참가자 모집

무주군은 제21회 무주반딧불축제와 함께 하는 2017 전국 김환태 글짓기대회 참가자를 모집한다.

전국의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2017 전국 김환태 글짓기대회는 오는 9월 1일 한중무 공원에서 개최되며, 참가신청은 25일까지 무주군청 기획조정실(예산담당 063-320-2231)로 방문 접수하거나, 우편(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무주군청 기획조정실 예산담당)이나 팩스(063-320-2229)로 가능하다.

또 무주반딧불축제 홈페이지(www.firefly.or.kr) 메인화면에서 전국환경예술대전(글짓기)으로 들어가 신청하기를 눌러 접수해도 된다.

대회는 예·본선없이 치러지며 운문부문 대상(최우수반디상) 1명에게는 문화체육부장관상이, 산문부문 대상(최우수반디상) 1명에게는 교육부장관상이 수여된다.  
이외에도 두 부문 모두 금상(전라북도지사상 / 초등부 1명, 중등부 1명), 은상(무주군수상 / 초등부 1명, 중등부 1명), 동상(무주교육지원청 교육장상 / 초등부 1명, 중등부 1명), 장려상(무주군회의의장상 / 초등부 1명, 중등부 1명), 특별상(반딧불축제제전위원장상 / 초등부 2명, 중등부 2명)이 수여될 예정이다. 입상자는 개별통보 후 반딧불축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 국악강좌 ‘청출어람’ 초급과정 수강생 24일까지 모집

국립민속국악원(원장 박호성)은 2017 하반기 일반인 국악강좌 ‘청출어람’의 초급과정(단기) 수강생을 18일부터 24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국민의 여가 선용 도모 및 국악 대중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강좌는 대금, 해금, 판소리, 한국무용, 가야금, 장구장단 등 총 6개 프로그램이 개설된다.

오는 9월 5일부터 12월 12일까지 15차례 진행되는 이번 강좌의 모집인원은 과목별 각 20

명(판소리반 30명)이다.  
모집대상은 만 18세 이상 일반인으로, 강좌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장애인 대상자에 한해 수강료(6만원)는 면제된다.  
대금과 한국무용에 필요한 교구는 개인이 지참해야 하며, 해금·가야금·장구장단은 약기를 무료로 제공한다.자세한 사항은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 (http://namwon.gugak.go.kr)을 참조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